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진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집단사회구조를 통해 본
군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조민아

집단사회구조를 통해 본
군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진관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조민아

인 준 서

조민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개인은 작은 단위로 가족 크게는 사회를 조직하는 구성원이다.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간답게 사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그것들은 법이나 제도로 규정되지 않는 사회의 암묵적인 규범들이다. 그 제도와 기준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해 비정상, 비주류로 분류하며 그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은 당연한 것이 됐으며, 지속적으로 억압받는 개인은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는 사회적 타자, 소수자에 대한 관용보다 개인의 무능력과 부적응의 문제를 삼으며 교화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의 제도나 규범 속에서 차별받는 사회적 타자들을 목격하고, 본인이 한국사회 내에서 겪은 성차별과 집단주의 사회속의 개인의 삶에 대해 해석한 군상표현 연구이다. 작업의 방향은 사회나 집단에서 겪었던 본인의 불완전함으로부터 시작하며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와 사회적 구조, 길들여지는 인물들과 억압당하는 타자들을 작품에 표현하였다. 사회의 규범이나 관습들이 개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강요받게 되는 현실과 그로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타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는 어떠한지를 관찰하였다.

반복적이고 무표정한 군상들의 모습을 통해 규격화된 삶을 사는 획일적인 현대인의 자화상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다. 사회적 타자들을 소재로 썼지만 결국엔 지금 사회를 사는 현대인에 관한 내용이며 대상에 대한 재현보다 해석과 상징성을 염두하며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제작된 본인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과 두드러지는 선에 대한 연구와 비현실적인 모호한 상징적 이미지의 구성이 어떤 이야기를 논하는지를 작품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집단주의 속의 개인	2
2. 작품 제작의 동기	4
3. 작품 설명	6
III. 결론	13

작품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그림에도 우리는, 장지에 혼합재료, 90.9x72.7cm, 2012	15
[작품 2] 그대와의 대화, 장지에 혼합재료, 60.6x72.7cm, 2012	16
[작품 3] 오늘부터 우리는, 장지에 혼합재료, 108x77cm, 2012	17
[작품 4] Untitled, 천에 아크릴, 68x48cm x2, 2013	18
[작품 5] 나, 너 그리고 우리, 천에 수채물감, 27.3x34.8cm, 2013	19
[작품 6] We are the one, 종이에 연필, 수채물감, 42x29cm, 2013	19
[작품 7] 체험학습, 장지에 혼합재료, 77.5x108cm, 2014	20
[작품 8] Human being, 장지에 혼합재료, 112x145cm, 2014	21
[작품 9] Final match, 장지에 혼합재료, 116.8x80.3cm, 2014	22
[작품 10] Suspending, 장지에 혼합재료, 97x130cm, 2014	23
[작품 11] 인고의 삼종경기, 종이에 연필, 먹, 39x80cm, 2014	24
[작품 12] 나도 가는 너의 길, 종이에 연필, 21x29.7cm, 2013	24
[작품 13] 이심전심(以心傳心), 램다프린트, 29.7x42cm x4, 2014	25

I. 서론

위 논문은 2014년 ‘Keep Going’ 이란 제목의 석사 청구전을 통해 발표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집단적 사회현상을 통해 보여 지는 사회 안의 집단 우위적인 구조와 그 안에서 억압받는 개인을 바라본 본인의 시각을 통해 그려낸 작품에 대한 논문이다.

사회라는 큰 집단 안에서 소수자, 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지배계층, 주류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규범을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로 맞추게 된다. 사회의 흐름 속에서 알게 된 것은 교육, 취업, 스펙 (specification)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점이었다. 그 영향으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못한 본인은 사회에 대한 이질감과 소외감을 체감했다. 자연스럽게 소수자,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그들에 대한 정서적 동질감이 생겨났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지 의문이 들었다.

본인의 작업은 기득권에서 밀려나게 된 ‘중년남성’ 에서 출발하여 세대나 성별의 특징을 없앤 불특정 다수의 군상들로 소재가 확장된다. 사회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타자들의 소외와 차별을 작품제작의 기초로 다루게 되었다. 또한 집단과 개인의 대립에서 오로지 개인만이 부당함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본인이 느꼈던 직간접적 체험을 군상들의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작품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 연구는 본인의 시각적 흐름과 이동을 알아보며, 재료에 따른 기법의 변화와 반복적으로 나열되는 무표정한 군상과 상징적 이미지 표현을 작품을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집단주의 속의 개인

지금의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가 경쟁체제이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되어있는 복잡한 사회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경제성장으로 발전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의 집단주의¹⁾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존중하는 경제 정책으로 연결된다.

집단주의에서 중요한 주체는 가족, 학교, 회사 등의 혈연이나 이익집단으로 모여 있는 집단이다. 개인들은 고유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이기보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특정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 안에서 개인이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많은 부분에서 개인주의가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집단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위에 있고 그 안에 소속되지 못하면 어디서도 그들의 권리에 대해 보호해줄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은 현실의 안위를 위해 집단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이를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해석하는 집단이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은 성별, 국적, 직업, 성정체성, 지역 등 무한히 분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

1) 경제학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존중하는 경제 정책의 원리를 이르는 말. 교육학에서 인간의 발달은 집단 안에서 그 집단을 위하여 개인을 훈련하는 방법에 의존하는 생각에 근거한 교육 방법의 원리를 이르는 말.(표준 국어대사전, 국립 국어원)

런데도 개인의 정체성을 하나로 단일화시킨다는 것은 개인이 갖는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집단은 항상 개인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절대다수와 소수의 게임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집단의 힘은 개인을 종속하게 되고 그들의 방향과 성격을 따르는 이들이 생겨난다. 대다수는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소위 말하는 스펙(specification)을 쌓아서 사회가 원하는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되어간다.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교육을 받거나 집단이 요구하는 외향으로 맞추어 가는 현실이다. 그 경쟁과 기준 속에 승자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학력이나 사는 지역, 성별 또는 외모까지도 기준에 해당한다. 문제는 패자들에 대한 사회의 태도인 것이다. 사회의 모든 부분과 분야에서 기득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류들이 있다. 그와 반대로 그들과 대립되거나 억압받는 비주류, 타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타자’라는 개념은 문화이론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타자는 일반적으로 지배 집단의 밖에 있고 암묵적으로 지배 집단에 종속된 자들을 포함하는 어휘다. 2)

이전 시대에는 여성, 어린이, 노인 정도였지만 이제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비정규직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능력하거나 현실체제에 반(反)하는 집단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이다. 소수자는 그 사회에서의 영향력이나 공식적 영역에서 발언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가 현저히 취약하거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뜻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의 권익과 발언권을 얻어내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단체나 노동자 조합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일까?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는 개인들의 문제일까?란 의문이 들었다. 소수자는 성, 언어, 종교 등으로도 나뉘지만 계급과 문화

2) 헬렌 조페,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한울아카데미, 2002, p.45.

적 차이와 갈등하는 가치관등 여러 요인이 있으며, 이 요인이 결합되어 증첩된 소수자도 있다.

모든 이들은 여러 방향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그것이 피부로 체감되고 생존에 위협을 가하게 되면 그들은 거리로 나와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발언하고 사회적으로 그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저항한다. 개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작용으로부터 인간됨을 보호하고 인간적인 처우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권에 기초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 역시 권력이나 규범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정당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개인들의 인권의 문제로도 이어지게 된다.

2. 작품제작의 동기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은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본인 역시 사회의 주류나 집권층이 아닌 소수자, 타자의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여성으로써의 역할 수행, 집단 안에 속하지 못한 불안감, 경제적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것 등을 견뎌 내야한다. 아직도 한국은 여성에게 많은 부분은 제한적이고 ‘88만원 세대’³⁾로 대변되는 본인세대의 현실에서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과 반복

3)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07년 전후 한국의 20대를 지칭. 비정규직 평균 급여 119만원에 20대 평균급여에 해당하는 73%를 곱한 금액이 88만원이다. 한국의 여러 세대 중 처음으로 승자독식 계임을 받아들인 세대가 된다. 이 말은 2007년 8월 출간된 책 《88만원 세대》에서 처음 쓰였다. 이 책의 저자인 우석훈씨는 "지금의 20대 중 상위 5% 정도만이 5급 사무원 이상의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평균 임금 88만원정도를 받는 비정규직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매일경제용어사전, 매경닷컴)

적으로 겪게 되는 경쟁체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본인과 반대의 성(性)과 세대로 관심이 흘러갔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이며 사회, 경제적으로 기득권층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성적불평등이나 차별을 겪을 일은 거의 없으며 대개 가정에서는 가장인 아버지들이다. 그들이 겪어왔던 시대는 일한만큼 돈을 벌 수 있었고 계층의 이동가능성도 지금보다 높았다. 자신들의 일에 대한 성취감도 높고 평생고용이 보장되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퍼져있던 시절을 살아왔다. 하지만 IMF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급속히 변했다. 이른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매서운 칼바람을 가장 뼈저리게 맞은 세대가 바로 중년세대이다. 컴퓨터 사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정보화의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마인드를 대체하게 되면서 기술적 실업이 불가피해졌다. 젊음과 아름다움이 큰 경쟁력이 된 한국사회에서 그들은 저절로 주류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상실감과 소외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대비도 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이동하게 되는 그들이 느끼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떤 것일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직장이나 가정 내에서 감정표현에 익숙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이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상들 역시 같은 위치에 처한 중년남성들일 것이라는 유추를 하였다. ‘화이트칼라 (white-collar)’⁴⁾의 중년 남성을 소재로 그들이 겪는 변화와 소외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가 겪을 차별로 시각을 확장하며 세대와 성별의 특징을 없앤 불특정의 군상들을 등장시키게 된다. 그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며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집단주의에 순응하게 된 평범한 주변의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 본인은 여성과 퀴어(queer)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그들이 이중, 삼중으로 겪고 있을 차

4)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푸른 작업복을 입는 육체노동자와 달리 흰 와이셔츠를 입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표준 국어대사전, 국립 국어원)

별과 사회적 역할수행⁵⁾의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가 그들에게 과연 어떤 정도로 다가오는지 의문이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자,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규범이 사회적인 합의로 인하여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타결되기까지는 진보와 보수뿐만 아닌 세대,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은 지속될 것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지점은 그들의 차이, 다름에 대해 관용하며 그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 이해해주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용의 자세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결국 본인과 타인의 관계의 대한 개념도 함의하고 있다.

3. 작품 설명

본인의 작업 중 [작품 1], [작품 2]에서 양복 입은 중년남성들이 등장한다. 인물은 나이든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캐릭터화하여 표현했고 양복은 ‘화이트 칼라 (white -collar)’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을 의미하고자 했다. 두 작품의 표현에서의 특징이 되는 것은 펜과 잉크를 이용하여 양복을 하나의 면으로 처리한 것이다. 작게 긁는 행위를 반복하여 양복이미지를 더욱 평면적으로 만들었고 인물과 사물은 그와 대비되는 표현방법을 이용하여 인물의 부각을 돕고자 하였다. 단순히 양복이 옷이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는 제도와 규범의 표상으로 생각했고 반복적인 선을 그어내는 일은 작품과정에 몰입하게 되는 지점이었다.

5) 사람이 기대된 역할을 일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것은 조작된 인형이나 로봇처럼 받아들여진 역할기대에 그대로 동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 독자의 동기나 욕구에 따라 어느 정도의 폭을 갖는 주체적인 행동으로 역할 실현이라고도 한다.(사회복지학사전)

작품에서 오리를 상징하여 이미지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권력 누수 현상을 빗대어 표현하는 ‘레임 덕(lame duck)’ 현상⁶⁾과 중년의 그들이 비슷한 지점을 발견하여 두이미지를 결합시켜 표현했다. [작품 3]도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는 그들이 여성성(女性性)⁷⁾으로 상징될 수 있는 속옷이나 구두를 몸에 대어 보며,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에 수용하는 모습으로 유희적으로 표현하였다. 화면 속 인물에서 주인공은 불분명하다. 비슷한 특징의 군상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들의 불안한 현재를 반영한 어둡고 암울한 이미지가 아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상황에 놓아진 그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자신들의 사회적 권위와 지위를 내려놓고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본인의 바람과 전통과 현대, 진보와 보수의 대립 속에서 유연해지는 그들을 기대하며 작품을 제작하였다. 단순히 아버지 세대들에 대한 동정 어린 시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왜 그들이 주체에서 멀어져 갔는지를 생각하게 됐다. 그 지점에서 작업의 소재를 한정하는 것에 의문과 한계를 느끼게 되었으며 그 후 작업의 소재가 인물이 되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성별과 세대를 열어두고 불특정 다수의 군상들에 대해 다루게 되는 계기로 전환된다. 인물의 표현에서 세대와 성별의 특징을 찾아볼 수 없게 획일적인 모습과 무표정한 특징의 인물을 그려냈다. 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평면적인 화면 구성으로 보는 이들은 인물에 대해 관조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6) 레임 덕(Lame Duck)은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이다. 즉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다. 임기 말 증후군이라고도 한다.[위키백과]

7) 여성으로서의 특질 혹은 여성적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의 뜻을 갖는데, 이는 주로 관계지향적인 능력이나 평화주의적 태도 또는 보살핌의 윤리와 같은 자질이나 가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사회·문화적인 구성물로서의 성을 의미하는 젠더(Gender)의 개념을 참조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성다움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결과 형성된 것으로, 그 여성다움의 덕목에는 가부장제의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을 동시에 고찰해야 한다.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감정이입이 아닌 상황을 유추하며 왜 그들이 이런 자세와 행동을 취하는 지에 궁금증을 일으키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작품4]는 젠더⁸⁾의 개념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타고난 성별과 그에 맞는 행동규범, 이성애가 보편적이라 여기는 지금의 사회가 가진 논리에서 소수자로 규정지어진 성소수자, 즉 LGBT⁹⁾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작업했다.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는 성소수자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또한 변했고 유명 인사들의 커밍아웃 또한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서구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기초하여 동성 간 결혼을 법으로 시행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선 그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그들의 ‘다름’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수자로서의 인권은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자문하게 된 작업이다.

[작품5], [작품6]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은 모두 여럿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집단주의는 '만인은 일인(一人)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개인이 억압받는 것은 사회의 일부 사람들, 즉 집단이나 사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한 집단, 한 계급의 이기주의에 기인하는 것이다. 파시즘의 전체주의가 그러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¹⁰⁾ 그 안에서 개개인의 고유성은 무시되며

동일한 원칙에 따라 취급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차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개인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상향됨으로써 이에 벗어난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실제적 폭력을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대다수

8) 젠더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젠더의 가장 기저를 이루는 층에는 성별이라는 규범, 즉 어떤 사람을 남성/여성이라고 인식할 때 작용하는 구별의 형식이 있으며, 그 위에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라는 스테레오 타입화된 이미지나 성별 역할과 같은 표층적인 규범이 구성되어 있다. 젠더는 이와 같이 인간의 생에 있어서 상대적임과 동시에 구속적이라는 2중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9)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10) 집단주의 [Collectivism, 集團主義]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개인들은 집단 안에 자신을 편입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 안에 들기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물질적, 육체적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말이다. 그렇게 형성된 집단의 성격에 의해 소속된 개인들은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해내야하며 그 과정 중에 다른 집단과의 사회적 갈등도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성, 지역, 이념으로까지 확장된다.

[작품 7]은 본인이 유년시절에 경험했던 체험학습이 배경이 된다. ‘다름’을 ‘틀림’으로 대하는 지금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이며, 자신의 기준과 다른 것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은 가족이나 속한 집단으로 퍼져 타인에게 세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사회 안에서의 학습이 편향적일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교육의 과정 모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기득권층들이 제시하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를 살아내기 위해, 버텨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의 방식의 제시일 것이다. 개인의 삶의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흡수된 이런 사회적 관념과 선입견에 대해 의심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작품 8]는 개인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살아가는 매순간마다의 선택이 모여져 한 인간의 삶이 과정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미 사회 구조 안에서 체계화되어 이분법적인 방법론을 내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개인의 몫으로 남겨놓았다. 결국은 선택의 여지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역시 보이지 않는 제도와 규정으로 엮어진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화면의 가운데에는 석상의 머리를 배치하고 균열로 인해 훼손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절대자의 존재가 과연 우리의 상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본인의 의심의 표현이었다. 화면은 다시점으로 구성하여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려하였다. 계단과 태아의 소재를 반복적으로 등장시켜 인간의 생사(生死)를 의미하며 연상적 화면 구성방식으로 석상을 기점으로 이미지를 확장시키며 작품을 구성하였다.

종교를 믿는 신자들은 신이 점지해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모든 선택엔 신의 뜻이 있다고 말한다. 그 발언에 대한 의구심과 그들의 행동의 아이러니함을 느낀다. 본인의 시각엔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며 삶을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커지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항상 선택의 신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문되는 지점이었다.

[작품 9]와 [작품 10]은 그런 현실을 살아내는 다수의 군상들을 표현했다. 집단주의 문화가 만연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개인들은 고유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이기보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특정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 안에서 삶을 지켜내야 하는 군상을 통해서 사회의 억압과 불합리를 묵묵히 개인의 몫으로 소화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단면을 표현하고자 했다. 무표정한 그들의 인상은 이미 사회구조 안에서 순응한 그들이 느끼는 사회의 권태와 그와 맞서 싸울 수 없는 무력감의 상징이기도 하다. [작품 9]에서 보이는 인물의 모습은 투쟁하는 근로자들의 데모 현장에서 가져온 형상이다. 본인이 종종 도심에서 열리는 데모나 시위현장을 목격하며 느꼈던 감정에서 약자, 을(乙)의 지위에서 겪는 불합리와 그들의 권리에 대해 투쟁한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그런 데모나 파업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들이 왜 거리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짚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느낀다.

위에서 짚었던 작품들은 대체로 평면적이며 색과 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채색을 위주로 여러 번의 채색과 선을 중첩시켜 한 가지 색으로 규정될 수 없는 오묘한 색감을 표현하려 했다. 현실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색이 아닌 대비가 되는 색을 선택하여 작품의 비현실성, 상징성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가면을 쓴 것 같은 무표정한 군상들의 모습에서 규범에 맞춰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든 이들이 느끼는 삶에 권태로움과 무감각함을 드러내고 오로지 그들의 행동으로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화면 구성을 대상에 대한 사생을 통하여 제작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시각을 통해 재해석한 소재와 인물을 배치하며 서사적인 구조를 갖는 상징적 이미지로 재현된다. 볼륨과 원근을 제한하여 평면적이고 도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한국 민중미술¹¹⁾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오윤(1946~1986)의 판화작업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민중미술이 행하던 그 시기에도 예술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었지만 민중미술이 갖고 있던 목적인 민중과의 소통, 미술의 사회적 확산으로 현실비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본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표현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내용적 맥락과 이미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소통효과에 작업태도를 일치 시킨 오윤의 자세를 통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지 짚어보게 되었다.

채색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던 작품들은 색에 대한 성격, 장식성과 완성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면 드로잉을 이용한 [작품 11], [작품 12] 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고를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큰 화면으로 확장되는 작업의 단초가 된다. 화면을 무채색으로 단조롭게 구성하거나 간결한 선으로만 표현했다. 이처럼 본인의 작업에서는 형상화된 이미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채색이 아닌 그려내는 선이 형상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주(主)가 된다.

평면작업의 매체의 방법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작업한 [작품 13]은 영화의 ‘스틸컷(still cut)’을 착안하여 작은 세트장을 제작했다. 그 전의 작품들은 주로 인물, 대상이 채워지고 난 후에 그 뒤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좀 더 공간을 드러내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드로잉으로 그려 넣은 사물과 인물들을 그 공간 안에 배치하여 각각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 촬영하였고

11)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과 그 반작용으로 제5공화국에 대한 저항이 사회운동으로 확산되던 무렵에 등장한 미술 흐름의 한 형태이다. 개인의식과 서구적 표현양상, 전문성이 소시민적 계급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농민의 미의식을 투영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두산백과)

시각의 변화를 이용하여 보는 이들의 감정 이입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제각기 다른 행동을 취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각개인의 삶의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로 작품의 제목도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지었다. 이전의 평면회화에서 보여준 관조적인 시점에서 좀 더 인물에게 맞춰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한국사회가 가진 집단주의와 집단의 우위, 그 안에서 발생하는 타자, 소수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본인의 시각으로 제작한 작품에 대해 논하였다.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지만 한국사회 저변에는 경쟁 이전에 집단주의가 만연해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집단은 개인보다 우위에 존재하며 구성원들에게 그에 맞는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게 한다. 그 요구에 맞춰 움직이며 사고하는 대다수의 개인과 그 속에 편입되지 못한 타자, 소수자의 억압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자행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단순히 타자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인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받았던 역할 수행과 차별에서 타자로써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때는 사회의 주류였다가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는 아버지 세대, 중년남성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작업이 시작되었다. 기득권층의 상징이었던 그들이 사회에서 멀어져가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소외를 관찰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와 변모하는 사회에 좀 더 유연해지길 바라는 기대를 담아 다소 희화화된 행동과 상황을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었다. 이후 작업은 좀 더 큰 범위에서 다수의 인물을 드러내고자 세대와 성별의 특징을 없앤 불특정의 군상을 등장시켰다. 군상들의 무표정한 모습에서 삶의 고통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단면을 드러내었고, 그것에 연상되는 소재의 이미지를 나열하고 접목시켜 작품을 제작하고, 제작의 과정에서 매체의 변화를 주며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이미지와 구성은 본인이 목격한 일상의 풍경과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는 상징적인 소재를 결합하여 그렸다. 인물이 많이 등장하지만 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평면적인 화면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관조적인 태도를 유도하며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상징성에서 해석의 여지를 두고자 했다.

작업의 발단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다수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었거나 앞으로 겪을 집단 안에서의 억압, 그리고 타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누구나가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것에 의해 개인의 삶이 침해받길 원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포용하고 생각하는 관용의 마음이 필요하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나 복지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 전에 개인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습이나 제도에 대해 건강한 호기심으로 반문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작업 과정 중에 본인 역시 사회에서 갖게 된 선입견이나 규범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하며 한국사회에 길들여져 있던 본인의 시각을 깨기란 쉽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바뀌는 일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부분에서 본인은 소극적이고 관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큰 움직임이 아닐지 모르지만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기초로 작품을 제작하며 그 시각을 발판으로 현재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논하며 그것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작품이란 수단을 통해 보는 이들의 더 많은 동의와 공감대를 얻고자 하며, 그렇게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본인만의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작품을 보다 밀도 있게 발전시키고자 한다.

[작품 도판]



[작품 1] 그림에도 우리는, 장지에 혼합재료, 90.9x72.7c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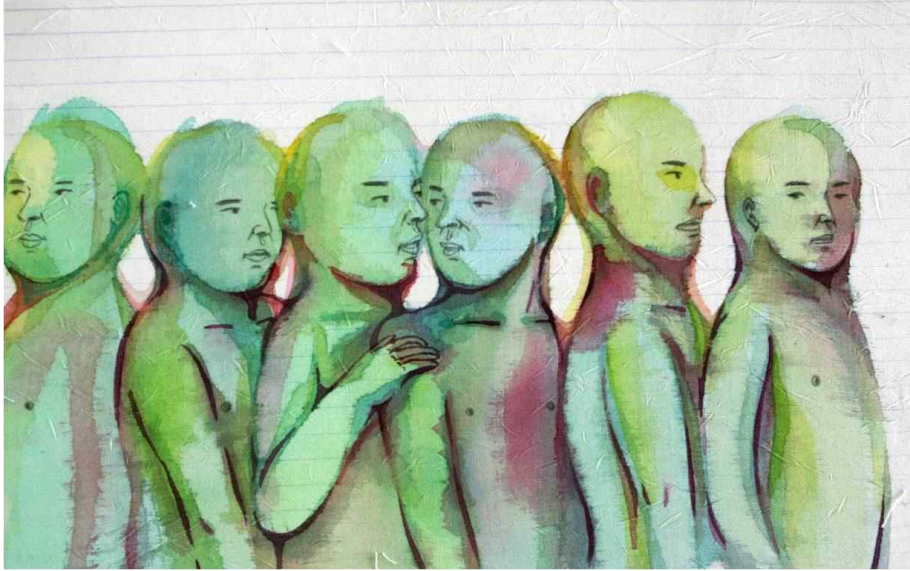
[작품 2] 그대와 의 대화, 장지에 혼합재료, 60.6x72.7cm, 2012



[작품 3] 오늘부터 우리는, 장지에 혼합재료, 108x77cm, 2012



[작품 4] Untitled, 천에 아크릴, 68x48cm x2, 2013



[작품 5] 나,너 그리고 우리, 천에 수채물감, 27.3x34.8cm,2013



[작품 6] We are the one, 종이에 연필, 수채물감, 42x29cm, 2013



[작품 7] 체험학습, 장지에 혼합재료, 77.5x108cm, 2014



[작품 8] Human being, 장지에 혼합재료, 112x145c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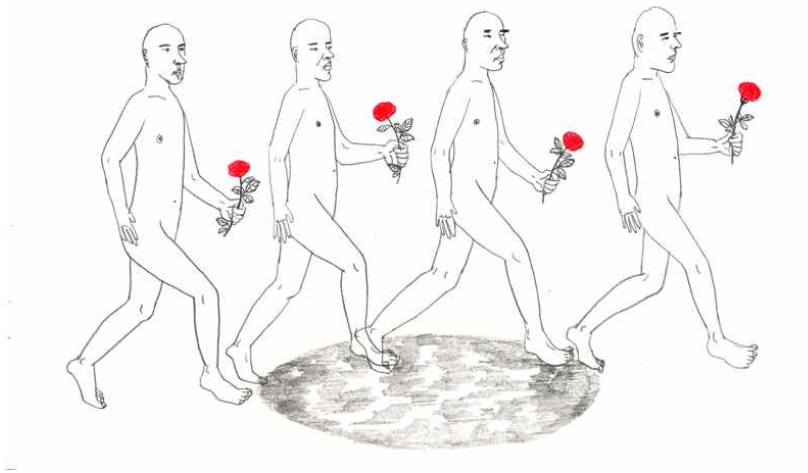
[작품 9] Suspending, 장지에 혼합재료, 97x130cm, 2014



[작품 10] Final match, 장지에 혼합재료, 116.8x80.3cm, 2014



[작품 11 인고의 삼중경기, 종이에 연필, 먹, 39x80cm, 2014



[작품 12] 나도 가는 너의 길, 종이에 연필, 21x29.7cm, 2013



[작품 13] 이심전심(以心傳心), 램다프린트, 29.7x42cm x4, 2014

참 고 문 헌

단행본

- 글로리아 스타이넘, 『일상의 반란』 현실문화연구, 2002
이진경,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우석훈, 박권일 『88만원 세대』 레디앙, 2007
존스토리,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1999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헬렌 조페,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한울아카데미, 2002

논문

- 김원식,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 연구회 논문집,
「사회와 철학」 제26 집 2013
김진하, 『오윤(吳潤)의 출판미술 목판화 : 비애와 박진감을 아우르는
신명(神命)의세계』 근대서지학회, 「근대서지」 6, 2012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프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연구회 논문집, 「사회와 철학」
제21집 2011
정근식,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 「경제와
사회」 제100호, 2013
홍찬숙, 『개인화와 ‘젠더사회’ 개인화 시대의 사회
불평등양상』 「한국사회학」 제47집 제1호 2013

ABSTRACT

A Study of Expression of a Large Group of People Viewed from Collective Social Structure —With a Main Focus on the Author's Work—

CHO, Min ah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dividuals are members of a family as a small unit and comprise a society as a large unit. In order to be faithful to our roles, we learn how to live a human-like life commonly accepted in our society. They are tacit norms not prescribed by laws or institutions. Those who go beyond such institutions and standards are classified as the abnormal or the nonmainstream. Oppression of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have become natural, and constantly suppressed individuals should endure the pain as it is. The society calls into question individuals' incompetence and maladjustment rather than having tolerance about social others and minorities and considers them as the subjects of edification.

This study concerns expression on a large group of people

witnessing social others discriminated within social institutions or norms and interpreting gender discrimination the author underwent in Korean society and individuals' life within a collectivist society. The work started with imperfections the author went through in the society or groups. The work expressed Korean society's collectivism, social structure, tamed characters, and oppressed others. The author observed how social norms or customs affected individuals, the reality they were forced to do keep such norms or customs, and our visions and attitudes to look at social others who appeared as a result.

The author intended to symbolically depict the uniform self-portraits of modern people living a standardized life through appearances of repetitive and expressionless large groups of people. This author used social others as subject matters but the work is in the end content on modern people living the current society; the author produced the work keeping in mind interpretation and symbolism rather than reproduction of objects. Through the process the author intends to study diverse expressions and noticeable lines appearing in the author's work and explain what story to discuss with composition of unrealistic blurred symbolic images through the work.